

사명성사 열반 400주기 기념 학술 세미나

치 사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각 당 대표님과 세미나에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교수님. 전국 각지에서 세미나에 관심을 갖고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는 물론 10월9일부터 이틀간 밀양 표충사에서 열리는 사명성사 열반 400주기 추모대재를 준비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정우스님과 밀양 표충사 주지 재경스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명성사는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한 민족의 성사(聖師)입니다. 스님께서서는 사대부의 집안에서 출생하여, 어린 시절부터 유학을 깊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조실부모한 후 불가와 인연을 맺어 출가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스님은 출가한 후에 교학 연찬은 물론 참선 수행에도 깊은 식견(識見)을 보이며 명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세속의 뜬 구름 같은 부귀영화를 멀리하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을 실천하며 산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사명성사께서는 1575년 묘향산 보현사에서 서산대사의 법을 이어 받은 후 금강산 등 명산을 순력(巡歷)하시며 수행하다, 상동암(上東菴)에서 소나기를 맞고 떨어지는 낙화(洛花)를 보고 무상을 느껴 문도(門徒)들을 해산하고, 홀로 참선에 들어갔습니다.

오직 수행정진에 몰두하던 사명성사는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더 이상 산사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위험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신이 손수 참전(參戰)의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비록 승복을 입은 출가자이지만, 중생들이 더 이상 고통에 빠져있는 것을 외면하지 않은 것입니다. 조선의 백성을 구하는 것은 물론, 왜군들도 더 이상 살육의 과보(果報)를 짓지 않도록 스님께서 직접 전장(戰場)에 나섰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는 일본과의 평화협상에 조선 정부를 대표하여 참석했고, 일본인들이 더 이상 전쟁의 야욕을 갖지 못하도록 했으며, 강제로 일본에 끌려간 3000여명의 조선인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처럼 사명성사는 올곧은 수행자였으며, 뛰어난 전략가였으며, 탁월한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성사의 내면에는 중생의 생명을 구하고, 사바세계의 평화를 이루고자 했던 원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성사의 이 같은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후손들의 막중한 과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열리는 학술세미나가 사명성사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조명하여, 스님께서 남기신 뜻을 우리 시대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명성사 열반 400주기 기념 세미나가 방황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스님의 소중한 지혜를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44년(2010년) 10월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